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작

楊口  
돌산령지게놀이



양구군







## 개 / 관

인간에게 산이라는 자연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에 있다. 산이 지닌 자연적 위압에 관계없이 산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로 인하여 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이러한 산악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환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끝없이 환경과의 투쟁과 순종, 그리고 순리와 역리의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대로의 특질을 지닌 민속문화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지이다.

그 가운데에서 강원도는 산악으로 형성된 천혜의 지역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양구의 자연환경은 이러한 산간이라는 영향아래 나름대로의 文化를 창조하며 오늘날 까지 이어져 왔다.

양구는 강원도 북동부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인제군, 서쪽으로는 화천군, 남쪽으로는 춘천시 그리고 북으로는 회양과 닿아있다.

또한 이곳은 함경남도에 접한 철령과 동해안의 해안선과 나란히 남과 북으로 흘러 뻗어 내린 태백산맥의 지맥이 금강산 남쪽 자

락으로 이어져 내려온 높고 많은 산자락에 둘러 쌓여 자리한 곳이다. 대암산, 응봉산, 사명산, 백암산, 대우산, 도솔산, 지혜산, 광치령 등의 웅장한 산봉우리 50여개가 늘 이 고장을 지켜준다. 내금강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은 북한강의 한 지류로서 이곳의 젖줄인 수입천을 만들어 파로호로 이어진다.

산과 계곡 그리고 호수로 형성된 양구는 삼국 이전에는 요은홀차, 고구려 때에는 양구, 통일신라 시대에는 양록 등으로 부르다가 고려조에는 양록과 양구 그리고 조선조에 와서 양구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 지역은 선사시대 부터 북방계 예맥족이 부족사회를 형성하여 생활해 왔던 역사의 고장이기도 하다.

양구읍의 고대리, 동면의 지식리, 남면의 송우리 등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지식묘 등의 선사 유물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렇듯이 이곳은 선사시대부터 산악과 하천이라는 자연적 환경과 오랜 역사적 배경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고장 특유의 문화적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산간분지의 지역으로 선조들의 향기가 전해오는 곳이다.



## 양/구/돌/산/령/지/게/놀/이

금강산의 산맥이 서남쪽으로 달려나와 양구와 회양군을 가르고 다시 이어져 양구의 진산인 비봉산을 이루었으며 이 산을 중심으로 사명산, 대암산, 도솔산, 광치령 등의 웅장한 50여개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대암산의 바랑골 마을은 돌산령을 자락에 품고 있는 양구의 대표적 민속마을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이러한 산악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소박한 민속문화를 창조하여 향유하여 왔다.

『양구의 지게놀이』民俗도 또한 이러한 자연적 환경과 이곳의 先民들의 지혜로 창출된 훌륭한 文化의 향기인 것이다.

### ☐ 지 게

먼저 지게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게는 농로(農路)를 낼 수 없었던 산간부락의 운반도구로서는 제격이었으며 평야지

대에서는 중요한 농기구였다.

지게는 가지가 조금 옆으로 돌린 자연목 두 개를 위는 좁고 아래는 벌어지게 나란히 세우고 그 사이에는 지게눈깔 (양구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과 밑에 받침대를 세운다. 그리고 위로 걸방을 달아 어깨에 메도록 한다.

지게 작대기는 언제나 따르는데, 짐을 엮고 세워 놓을 때, 짐을 지고 일어날 때에 받침의 역할을 감당한다.

지게의 명칭은 알구지 (지게눈에다 끼우는 나무), 지게뿔, 지게가지, 지게다리 그리고 중요한 지게작대기가 있다. ‘지게를 지고 제사를 지내도 제 멋이다.’ 라는 우리의 속담에 지게가 나오는데 그 만큼 지게는 중요한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운반도구의 하나였다.

이 지게는 신체의 일부분으로도 생각하는 우리 민족만의 목재 문화가 아닌가 한다.





## 유/래/및/특/색

양구 지게 놀이는 운반도구인 지게를 소재로 하여 이루어진 민속이다.

산간에서의 작업은 대체로 험한 지역의 火田을 일구어 그곳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운반이며, 연료용 땔감을 운반하기 위하여, 그리고 산간에서 퇴비를 마련하여 올 때 비탈길이나 오솔길에서 지게가 차지하는 운반능력은 지대하다.

산악을 중심으로 한 노동은 힘든 것이였기에 부락에서 울력이나 공동두레 조직속에서 이루어지던 나무하기, 곡물운반, 퇴비마련, 그 밖에 숲을 구워서 내려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승부놀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한 놀이로는 넓은 구릉지나 무덤가에서 하던 『장치기 놀이』 그리고 지게를 가지고 꾸며서 하던 『상여놀이』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古老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의 벽참과 고통을 놀이로 극복하였다 한다. 또한 증언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주로 상여놀이를 많이 하였다고 한다.

지게놀이는 개인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지게걸음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놀이가 있다.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묶어서 상여를 만들어 승부를 한다. 구성진 선소리에 맞추어 출상을 하여 두 개의 상여가 부딪혀 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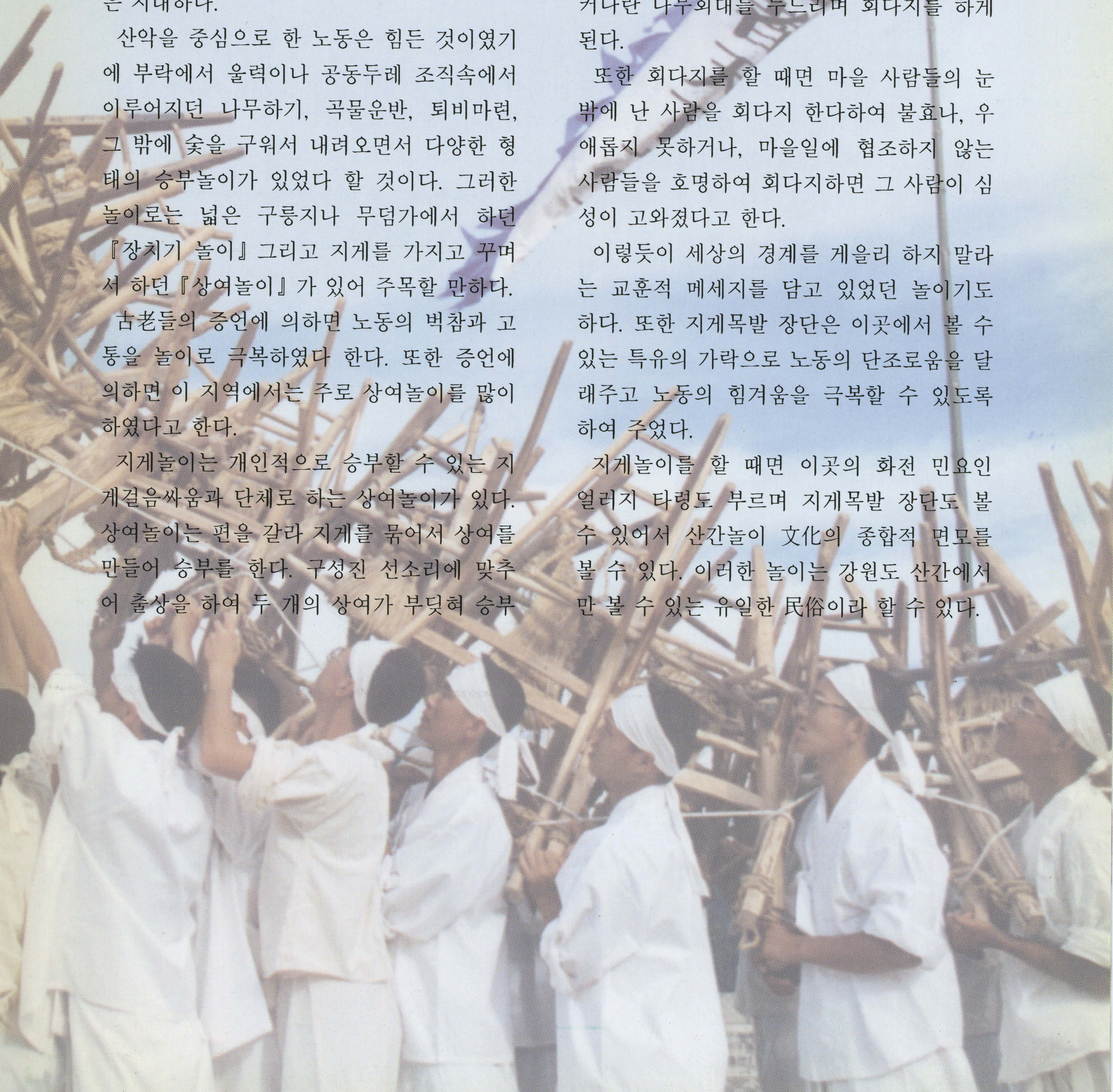
를 가른다. 이때에 상여가 먼저 부서진다거나, 쓰러진다거나, 힘이 없어 뒷걸음질치게 되면 그 편이 승부에서 지게되는 것이다. 승부가 끝나면 이긴팀의 지게짐을 일부 마을까지 운반해주는 내기를 하기도 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가운데 회다지 부분이 있는데 회다지 할 때에는 산에서 채취한 커다란 나무회대를 두드리며 회다지를 하게 된다.

또한 회다지를 할 때면 마을 사람들의 눈 밖에 난 사람을 회다지 한다하여 불효나, 우애롭지 못하거나, 마을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호명하여 회다지하면 그 사람이 심성이 고와졌다고 한다.

이렇듯이 세상의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놀이기도 하다. 또한 지게목발 장단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가락으로 노동의 단조로움을 달래주고 노동의 힘겨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지게놀이를 할 때면 이곳의 화전 민요인 얼리지 타령도 부르며 지게목발 장단도 볼 수 있어서 산간놀이 文化의 종합적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놀이는 강원도 산간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民俗이라 할 수 있다.





■ 첫째마당 : 고사반

- ◎ 경연단은 양쪽마을로 나뉘어 경연장의 두 방향에서 입장을 하고 농악은 중앙에서 입장을 한다.
- ※ 입장과 동시에 얼리지타령을 하며 원을 만든다.
- ◎ 농악과 지계장단소리, 얼리지타령이 함께 조화롭게 입장하는 동안 계속 나온다.
- ◎ 입장이 끝나면 산신에 대한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지계탑을 쌓고 제례와 고사소리를 한다.

■ 둘째 마당 : 지계걸음 놀이

- ◎ 고사소리가 끝나면서 각조별로 지계걸음놀이를 할 수 있는 대형으로 만든다.
- ◎ 서로 편을 나누어 지계걸음으로 이동을 하여 상대방을 밀어 떨어 뜨린다. 최후까지 남은 쪽이 이긴것으로 하여 함성을 지르고 지계상여놀이 준비를 한다.

■ 셋째 마당 : 지계상여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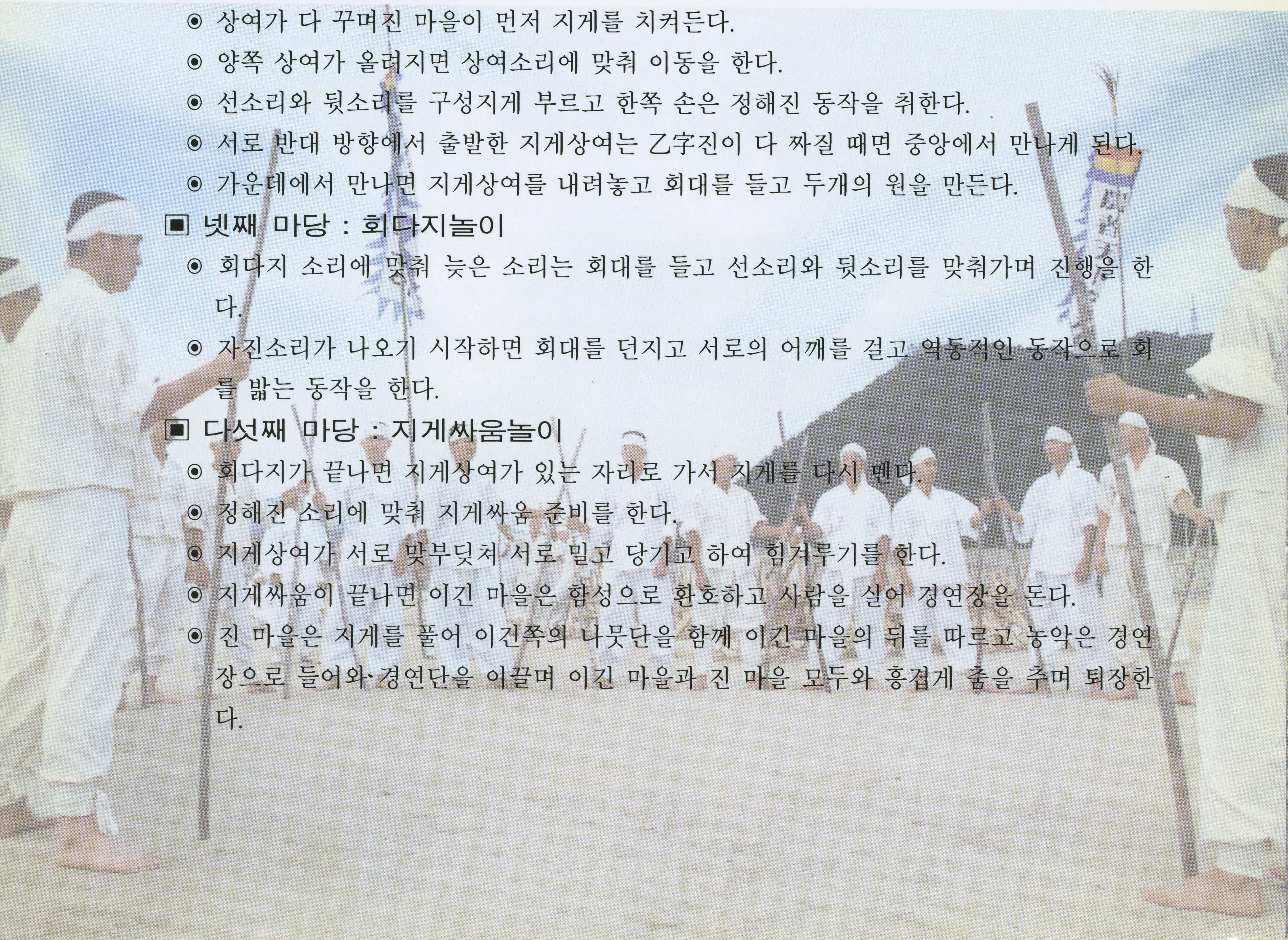
- ◎ 지정된 장소에 다다르면 빠른 속도로 지계와 지계작대기를 이용하여 지계상여를 꾸민다.
- ◎ 지계상여를 꾸미는 동안 농악과 함께 주위에서 흥겹게 논다.
- ◎ 상여가 다 꾸며진 마을이 먼저 지계를 치켜든다.
- ◎ 양쪽 상여가 올려지면 상여소리에 맞춰 이동을 한다.
- ◎ 선소리와 뒷소리를 구성지계 부르고 한쪽 손은 정해진 동작을 취한다.
- ◎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출발한 지계상여는 乙字진이 다 짜질 때면 중앙에서 만나게 된다.
- ◎ 가운데에서 만나면 지계상여를 내려놓고 회대를 들고 두개의 원을 만든다.

■ 넷째 마당 : 회다지놀이

- ◎ 회다지 소리에 맞춰 늦은 소리는 회대를 들고 선소리와 뒷소리를 맞춰가며 진행을 한다.
- ◎ 자진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회대를 던지고 서로의 어깨를 걸고 역동적인 동작으로 회를 밟는 동작을 한다.

■ 다섯째 마당 : 지계싸움놀이

- ◎ 회다지가 끝나면 지계상여가 있는 자리로 가서 지계를 다시 맨다.
- ◎ 정해진 소리에 맞춰 지계싸움 준비를 한다.
- ◎ 지계상여가 서로 맞부딪쳐 서로 밀고 당기고 하여 힘겨루기를 한다.
- ◎ 지계싸움이 끝나면 이긴 마을은 함성으로 환호하고 사람을 실어 경연장을 돈다.
- ◎ 진 마을은 지계를 풀어 이긴쪽의 나뭇단을 함께 이긴 마을의 뒤를 따르고 농악은 경연장으로 들어와 경연단을 이끌며 이긴 마을과 진 마을 모두와 흥겹게 춤을 추며 퇴장한다.





## 출 / 연

고 증 : 고 순 복 (69 / 양구군 동면 팔랑리)

지 도 : 김 종 달 (41 / 강원도민속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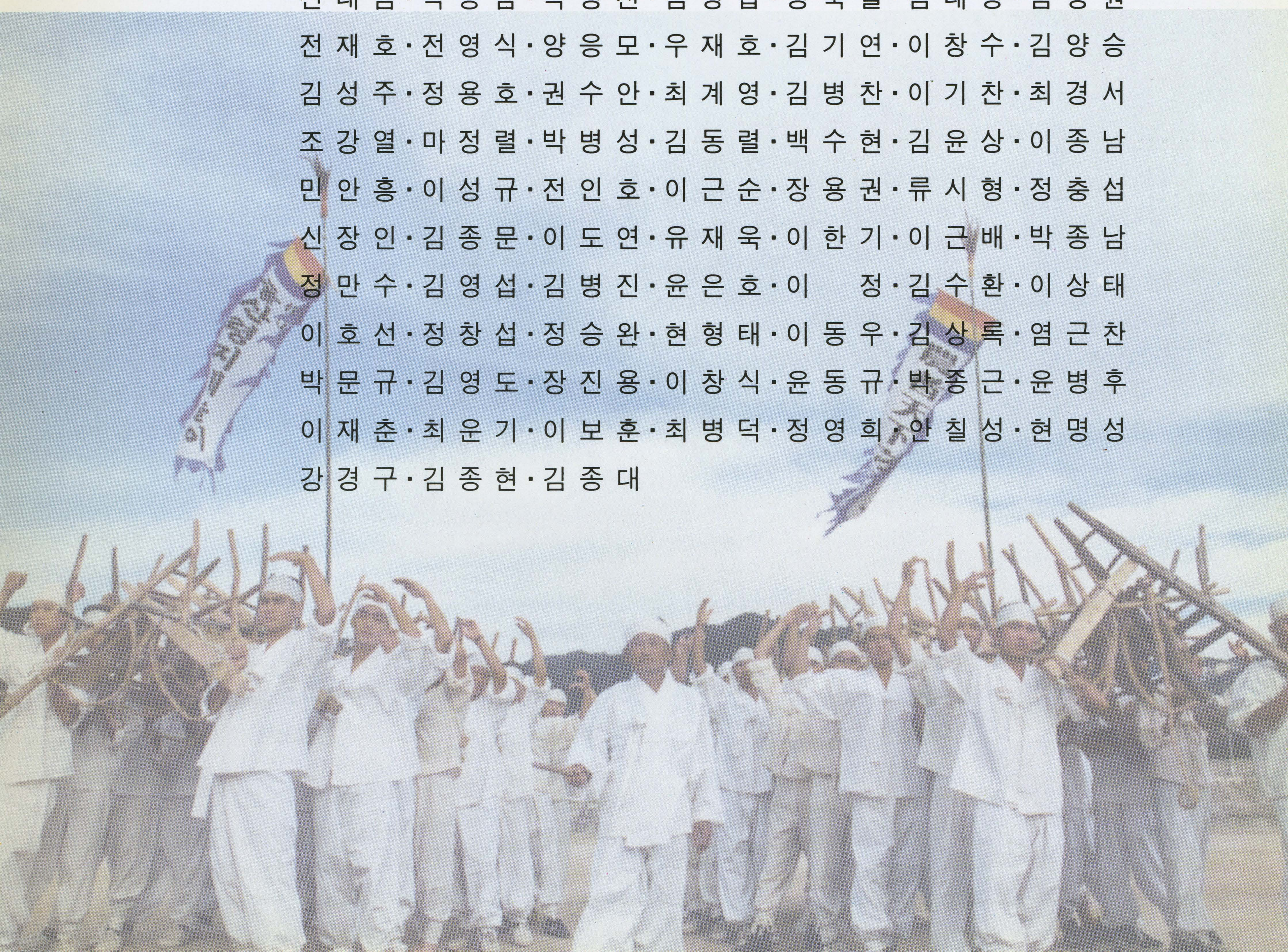
김 규 호 (34 / 양구군 문화재전문위원)

채 록 : 김 경 남 (37 / 강원도민속학회)

선 소 리 : 안 동 원 (63 / 양구군 동면 팔랑리)

얼러지타령 : 김 옥 희 (57) · 김 옥 봉 (58) · 김 덕 원 (59)

출 연 : 최 정 식 · 홍 성 삼 · 엄 문 섭 · 전 영 학 · 허 만 순 · 백 학 선 · 한 동 규  
 장 기 창 · 정 갑 수 · 고 광 현 · 최 봉 상 · 김 재 동 · 송 연 기 · 이 승 호  
 황 영 동 · 심 재 석 · 이 우 노 · 이 선 호 · 현 현 주 · 도 기 태 · 강 승 목  
 임 종 용 · 이 재 위 · 송 경 용 · 박 근 일 · 윤 여 일 · 한 성 현 · 이 태 희  
 문 청 욱 · 이 창 석 · 최 상 용 · 김 대 상 · 송 창 주 · 김 동 진 · 김 재 형  
 박 종 선 · 김 영 관 · 정 병 용 · 고 영 길 · 오 민 수 · 정 경 현 · 한 용 남  
 신 대 범 · 박 종 남 · 박 정 천 · 김 상 갑 · 정 욱 철 · 김 태 형 · 김 성 원  
 전 재 호 · 전 영 식 · 양 응 모 · 우 재 호 · 김 기 연 · 이 창 수 · 김 양 승  
 김 성 주 · 정 용 호 · 권 수 안 · 최 계 영 · 김 병 찬 · 이 기 찬 · 최 경 서  
 조 강 열 · 마 정 렬 · 박 병 성 · 김 동 렬 · 백 수 현 · 김 윤 상 · 이 종 남  
 민 안 흥 · 이 성 규 · 전 인 호 · 이 근 순 · 장 용 권 · 류 시 형 · 정 충 섭  
 신 장 인 · 김 종 문 · 이 도 연 · 유 재 욱 · 이 한 기 · 이 근 배 · 박 종 남  
 정 만 수 · 김 영 섭 · 김 병 진 · 윤 은 호 · 이 정 · 김 수 환 · 이 상 태  
 이 호 선 · 정 창 섭 · 정 승 완 · 현 형 태 · 이 동 우 · 김 상 록 · 엄 근 찬  
 박 문 규 · 김 영 도 · 장 진 용 · 이 창 식 · 윤 동 규 · 박 종 근 · 윤 병 후  
 이 재 춘 · 최 운 기 · 이 보 훈 · 최 병 덕 · 정 영 희 · 안 칠 성 · 현 명 성  
 강 경 구 · 김 종 현 · 김 종 대





**돌산령지게놀이**  
**江原道 楊口郡**



**1996. 10. 16~18**  
**성남시 종합운동장**